



미 증시, 긴축 종료 기대 등으로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9일(수) 미국 증시는 은행권 위기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PCE 물가 추가하락 및 연내 금리 인하 대감, 국채금리 하락, 중국 기술주 및 빅테크 반등 등 위험선호심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상승 (다우 +1%, S&P500 +1.42%, 나스닥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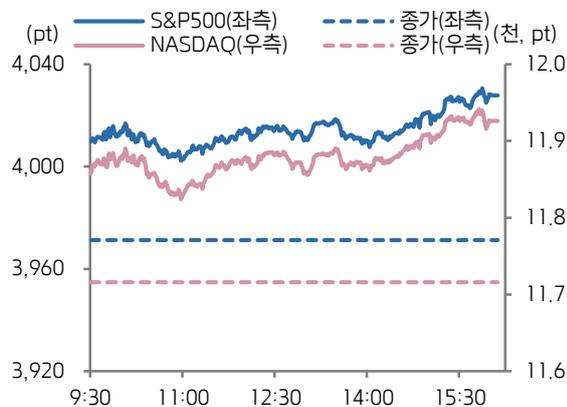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우크라이나로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 러시아의 핵심 우방국인 중국에 중재를 위한대화를 촉구해 러시아-중국 간 연대를 약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 젤렌스키 대통령은 시 주석이 러시아 방문 당시 무기 지원을 공식화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오랫동안 러시아에 우호적이었던 중국조차 더는 러시아를 지원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전일에 SVB 관련 은행 규제 및 감독에 대한 검토를 지속할 것이며 5월에 연준 내부 보고서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언급. 한편, 작년 4분기 기준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중심 업무지구의 오피스 임대건수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상업용 부동산 가격하락 압력에 대한 우려 확대. 미국 2월 미결주택매매는 전월대비 -3.0%(예상 0.8%, 전월 8.1%) 기록하며 예상치 하회.

UBS(4.31%)는 CS 인수 관련 스위스 정부의 유동성 공급 승인 소식과 CEO 교체 소식에 강세. 도이치뱅크(3.01%), 퍼스트 리퍼블릭은행(5.63%), 웨턴 얼라이언스 은행(6.62%) 등 지역은행을 비롯하여 BOA(1.96%), 웰스파고(2.12%) 등 대형 은행도 동반 상승. 전일 알리바바의 분사 소식 영향으로 중국 기술주 강세 및 애플(1.98%), 알파벳(0.36%), 아마존(3.1%), 메타(2.33%) 등 주요 빅테크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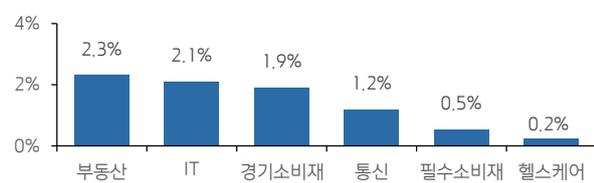
특히 마이크론(7.19%)은 부진한 실적에도 AI 등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에 대해 낙관적으로 전망하며 강세, 인텔(7.61%) 역시 동반 상승. 올해 급락한 전기차 업체 루시드(2.0%)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전체 직원의 약 18%인 13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하며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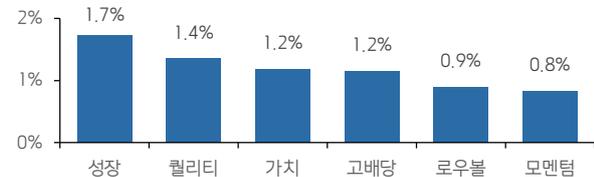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43.92	+0.37%	USD/KRW	1,302.90	+0.3%
코스피 200	317.01	+0.21%	달러 지수	102.65	+0.22%
코스닥	843.94	+1.25%	EUR/USD	1.08	-0.02%
코스닥 150	1,238.82	+1.83%	USD/CNH	6.90	+0.01%
S&P500	4,027.81	+1.42%	USD/JPY	132.76	-0.08%
NASDAQ	11,926.24	+1.79%	채권시장		
다우	32,717.60	+1%	국고채 3년	3.229	-3.1bp
VIX	19.12	-4.26%	국고채 10년	3.268	-0.9bp
러셀 2000	1,771.60	+1.08%	미국 국채 2년	4.099	+2.1bp
필라. 반도체	3,157.11	+3.27%	미국 국채 10년	3.564	-0.6bp
다우 운송	14,071.86	+0.99%	미국 국채 30년	3.759	-1.1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31.27	+1.51%	WTI	72.97	-0.31%
MSCI 전세계 지수	635.30	+1.25%	브렌트유	78.12	-0.67%
MSCI DM 지수	2,739.42	+1.28%	금	1984.5	-0.3%
MSCI EM 지수	970.69	+0.69%	은	23.47	+0.2%
MSCI 한국 ETF	60.00	-0.05%	구리	408.65	+0.0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05%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2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4.5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은행권 위기 진정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2. 마이크론 주가 7%대 급등이 국내 반도체주 반등 탄력을 개선시킬 가능성 3. 미국 성장주 동반 강세가 국내 성장주들 투자심리 호전시킬지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정부와 민간의 후속 대응으로 금주 들어 미국 중소형 은행 및 유럽 은행 위기가 진정되면서, 주중 주요국 증시에 추가 복원력이 생성되고 있는 모습.

다만, 52 주 신고가 및 신저가, 이동평균선, 풋콜 비율 등 증시 내 다양한 가격 지표를 조합해 산출한 투자심리지표인 CNN의 Fear & Greed Index 가 40pt로 여전히 Fear의 영역(25~45pt)에 있다는 점은 현재의 은행사태가 종결됐다고 보기 어려운 투자자들이 많음을 시사. 다음 은행권 위기의 희생양으로 장기채 중심의 미실현 손실이 약 290억달러('22년 말 기준)에 달하는 찰스슈왑(3월 이후 주가 -29%)이 지목되는 등 시장은 금융시장 전반의 취약성을 찾는 과정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전망.

그렇지만 이번의 은행 위기는 파생상품 등 거래상대방 위험을 증폭시키는 곳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안전자산인 국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 과거 리먼사태와의 본질적인 차이점. 더 나아가, 전일 연준 부의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특정 은행들의 관리 부실이 문제의 발단이었던 만큼, SVB 사태를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시스템 리스크가 아닌 국지적인 리스크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전일 증시 반등의 주요 동인이었던 연준의 긴축종료 기대감을 가져가는 것도 유효. 지난 3월 FOMC 결과를 반추해보면, 연준 역시 최근의 SVB 발 은행 불안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신용시장 여건의 타이트함이 실질적인 금리인상 효과를 내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던 상황.

물론 점도표 상 연준은 최종금리를 5.25%로 제시한 반면, CME Fed watch 상 시장은 5월 FOMC에서 동결(최종금리 5.0%)에 베티하는 등 연준과 시장의 시각 차이는 덜 좁혀진 상태. 하지만 긴축 강도는 SVB 사태 발생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해진다라는 경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데이터 의존적으로 진행되는 연준이기에 미래를 단정 짓기에는 어려우나, 연말로 갈수록 통화정책의 환경은 주식시장이 친화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제 하에 중기적인 증시 대응전략을 수립해가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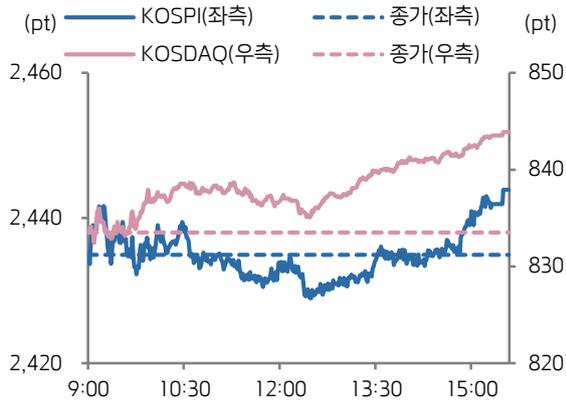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분기 실적 부진에도,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저가매수세 유입, 2차전지주에 대한 수급 풀림현상 재 접화 등으로 상승 마감(코스피 +0.4%, 코스닥 +1.3%).

금일에도 선진국 은행권 불안 소강, 연준 긴축 사이클 종료 기대 등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에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보일 전망.

업종 관점에서는 전일 삼성전자(-0.3%), SK하이닉스(-1.7%)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마이크론 실적 부진 소식 등으로 약세를 보이긴 했으나, 금일에는 국내 반도체주들의 반등 가능성이 높음. 미국 본장에서 마이크론이 메모리 수급 여건 개선 및 실적 바닥 확인 기대 등으로 주가가 7%대 급등했으며, 인텔(+7.6%), 램리서치(+6.3%) 등 여타 반도체주들도 동반 상승세를 연출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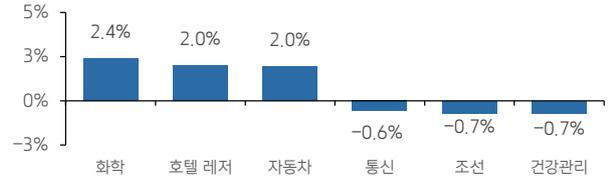
또한 애플(+2.0%), MS(+1.9%), 테슬라(+2.5%) 등 빅테크 및 성장주들이 매크로 환경 호전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는 점도 국내 인터넷, 게임 등 전반적인 성장섹터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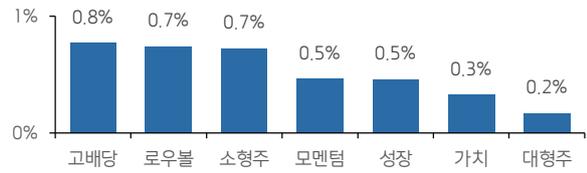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